



지평선 생명도시 온종일 생기발랄

이번 가을 전통 농경문화를 즐길 수 있는 김제 지평선이 관광객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뜨거운 햇빛 속에 만물이 성장하는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 오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면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시장 정성주)에서는 한민족 전통 농경문화와 소중한 지역 문화 유산을 요즘 트렌드와 조화롭게 구성, 꾸준히 계승해 나가는 김제지평선축제가 개최된다.

명실상부한 농경문화 축제의 고유명사로서 26년째 명맥을 이어가는 김제지평선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그치지 않고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사로잡는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풍성한 향연을 우리 모두 즐겨보자.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 온종일 생기발랄한 김제지평선축제

지평선의 황금벌판, 생명이 싹트는 대지, 수평선의 새만금. 지평선 생명도시 김제는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풍요와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다. 전국 유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평선을 볼 수 있고 국내 최대 곡창지대로서 농경문화를 계승해 왔으며, 우리나라 최고(最古), 최대 저수지인 사직 제11호 벽골제를 자랑한다.

김제는 이러한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특성과 더불어 관내 특산물인 지평선 쌀을 소재로 1999년부터 김제지평선축제를 개최해 왔다. 이를 통해 타 지치 단체와 차별화를 두는 동시에 관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번 축제는 특별히 지평선의 하루를 온종일 생기발랄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명이 숨 쉬는 김제에서 질 좋은 먹거리로 넘치는 기운을 얻고, 지역민과 함께 축제를 운영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을 통해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바른 추억의 7080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이 펼쳐진다.

▲풍요의 땅 김제, 나눔의 미학을 보이다... 오색쌀 캐릭터 모자이크 만들기

김제지평선축제에는 지평선 쌀과 김제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남녀노소, 내·외국인 모두 화합해 모자이크를 꾸미는 쌀 이슈메이킹 프로그램이 있다. 지평선 쌀을 비롯한 관내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해 2022년부터 기획되어 매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올해는 김제의 새로운 상징 캐릭터인 싸리, 콩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평선 황금들녘에서 생산되는 쌀알과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콩을 현대적 감각으로 의인화한 싸리, 콩이를 대형 모자이크로 만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광객에게 캐릭터를 홍보하고 김제의 상징물로서 이미지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기부

천만을 넘어 천오백만 시대를 바라보는 반려 인구 트렌드에 맞춰 김제지평선축제는 올해 처음으로 반려동물 전용 라운지인 '지평선 펫 존'을 조성한다.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와 쉼터를 통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축제장에 방문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동교정 상담센터와 의료센터 등 반려동물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젊은 층을 겨냥한 포토존과 간식부스 및 쉼터를 구성한 마중거리, 대지아트 위를 가로지르는 레저스포츠 쥘리인 체험, 들렁과 논밭과 함께 즐기는 지평선 쌀뜨물 족욕체험, 짚공을 이용하는 풋살 대회 등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구성됐다.

▲낮부터 밤까지, 중간에 떠날 수가 없는 풍성한 프로그램... 두루마블 체험, 지평선 파이널 판타지쇼

김제지평선축제는 낮과 밤 모두 각각의 매력에 넘쳐흘러서 발길 닿는 대로 눈길을 사로잡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즐기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만다.

특히, 올해는 벽골제를 두루두루 둘러보며 미션을 통과해야 하는 두루마블에 참여해 메뚜기 잡기, 버 베기와 같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다가 최종 목적인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에 도착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는 재미도 더할 수 있다. 종으로 된 스탬프 투어를 통해 핸드폰 화면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는 기억 속에 묻혀 있던 레트로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에게는 색다른 경험을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 서늘한 바람과 함께 여름이 내려앉으면 낮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드넓은 쌍룡 광장에서 거대한 쌍룡 조형물 뒤로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지평선 파이널 판타지 쇼는 바라보는 관광객 모두에게 뜨거운 감동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 LED 스크린에 연출되는 강렬하고 화려한 멀티미디어 쇼와 레이저쇼가 가미되고, 폐막식 때는 펼쳐지는 불꽃이 마치 꽃과 같다는 낙화놀이까지 더해져 김제지평선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계획이다.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

김제지평선축제는 지난 12월 '2024 전북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다. 기획, 운영, 콘텐츠, 방문객 만족도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명예 문화관광축제로서 그 위상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세계를 넘어 국내·외 관광객 모두 어우러져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축제장 내에 글로벌 푸드코트와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글로벌센터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문화를 즐기다가 잠시 친숙한 분위기에서 쉬어 갈 수 있는, 내국인 관광객에게는 이국적인 느낌을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모두를 만족시킬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지평선축제는 어린이이들부터 2030 세대와 해외 관광객은 농경문화 체험 등 색다른 경험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쌓고, 어른들은 어린 시절의 향수와 함께 추억을 덧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축제를 찾아주시신 모든 분이 행복한 기억만 한아름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원데이 쿠킹클래스·맛보자고 컴페티션 통해 지역과 상생 도모 지역 농특산물 모자이크 꾸미기에 상징 캐릭터 싸리·콩이 활용 쌍룡놀이·입석 줄다리기 등 전통 행사 프로그램, 관광객 참여 가능 반려동물 전용 라운지 조성... 메뚜기 잡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

▲지역과 상생하는 축제, 지역에 활력을 더하다... 원데이 쿠킹클래스, 맛보자고 컴페티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김제지평선축제에 찾아온 현지인과 외국인(외국인 포함)의 비율은 대체로 39%, 61%로 유사하게 이어진다. 매년 관내 거주 방문객의 1.5 배가 넘는 수의 관광객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타지에서 김제까지 찾아온다는 의미다. 이때 타지 관광객의 관광 소비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시는 이에 덧붙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원동력을 얻기 위해 이번 축제에서 지역 특화품목인 가루쌀을 활용한 음식 강좌 '원데이 쿠킹클래스'를 열고, 관내 대표맛집 선정 프로젝트 '맛보자고 컴페티션'에서 선발된 관내 음식점 9개소를 벽골제 축제장 내 음식부스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원데이 쿠킹클래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축제 수용태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김제 가루쌀을 활용해 개발한 먹거리 콘셉트의 레시피를 관광객과 공유하고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김제 가루쌀의 맛과 품질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관내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맛보자고 컴페티션은 관내 소상공인의 대표 메뉴를 알려 상권을 살리는 동시에 일부 타 지역 축제에서 발생하는 부실 먹거리와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기 위해 추진됐다.

그 외에도 시내권 상권이 축제와 함께 상생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헌 내아와 향교에서 지평선 초중고 백일장 대회, 지평선 열린 음악회, 가

즐거움을 더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모자이크를 완성하는 퍼포먼스가 끝난 후 관광객에게 나눠주었던 예년과 달리, 관내 취약계층과 불우이웃 단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가 기부에 동참하게 하고 나눔으로써 마을이 더 풍요로워지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 행사에 관광객 참여를 독려했다... 쌍룡놀이, 입석줄다리기, 쥘신 신고 황금쌀을 받자 등

김제지평선축제를 대표하는 전통 행사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관광객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벽골제에 얽힌 단야 설화를 바탕으로 청룡과 백룡의 싸움을 시연하는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여성이 이기면 풍년이 온다는 옛말을 기반으로 남과 여로 편을 나눠 깃발무 공연과 함께 선보이는 '풍년기원 입석 줄다리기', 조선시대 벽골제를 보수하는 인부들이 헤어진 쥘신을 버리던 것에서 기원해 쥘신을 신고 풍물단을 선두로 벽골제 제방을 걸으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쥘신 신고 황금쌀을 받자'는 웅장하게 펼쳐지는 전통 행사 시연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넘어 함께 참여하다 보면, 설화와 기원에 몰입하게 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의 흥까지 돋우는 것은 물론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다.

축제 기간 2~3회기량 진행될 해당 프로그램들은 오는 9월 김제지평선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통해 시연에 참여할 관광객을 모집할 계획이다.

▲반려인구 천오백만 시대, 현 트렌드에 발맞춰 가다... 지평선 펫 존

